

기강 해이 度 넘은 목포시 공직자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출서기 1년새 음주운전 20명 징계 처분

목포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위협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장이 공개석상에서 선거와 관련 공무원 출서기의 폐해를 질타하고 나서는가하면, 정부의 강력한 근절지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직 개편과 맞물린 대규모 정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까지 술렁거리 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7월 확대간부 회의에서 “선거가 1년이나 남았음에도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후보로 거론되는 특징인을 따라다니며 돕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만약 이런 말들이 다시 들려올 경우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사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최근 1년 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직자만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징계기준에 따르면 2회 적발시 정직·강등, 3회 땀 해임·파면, 뺑소니의 경우는 정직·파면 등 중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징계 현황에 따르면 1년 새 20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16명은 견책, 4명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포유유지업무 위반인 음주운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는 3명이

었다. 또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금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도 각각 1명에 달했다. 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까지 받은 정종득 시장의 약속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목포시의 회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출석한 공직자들의 의회 경시 처신도 도마 위에 올라 상임위원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로 확산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영수 의원은 “시장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이다 보니가 레임덕 현상이 온 것 같다”고 질타했다.

최홍림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말고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맛·향 좋은 완도 황금 비파 지난 4일 완도군 한 비파 재배 농민이 황금색 비파를 수확하고 있다. 초여름에 나오는 비파는 황금색을 띠고 과즙이 많으며 맛과 향이 좋다. 완도군에서는 134농가가 비파 30여톤을 생산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전량 판매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남고구마생산자협·함평축산업협동조합 지리적 표시 지원 대상자 선정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남지원은 7일 “농축산물 지리적표시 우수단체 지원 사업대상자로 (사)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의와 함평축산업협동조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의 농축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22개 가운데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곳을 선정했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은 이번에 선정된 단체에 각각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들 단체가 제품 포장재 디자인과 홍보물 제작, 경영

자문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리적표시 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등락단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제도는 농산물의 품질, 특징 등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에는 84개의 지리적특산물 등록돼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군, 경북 성주군과 상생협력 자매결연

무안군과 경북 성주군이 상생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사진>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열린 자매결연 체결식에는 무안군에서 김철주(사진 왼쪽) 군수, 임덕수 군의회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성주군에서는 김항곤 성주군수, 도정배 군의회의장, 군의원 등 20여 명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 5월부터 양 지자체가 자매결연의사를 밝힌 뒤 상호방문, 내용을 조율한 뒤 두 달만에 이뤄졌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무안군과 성주군을 주요 행사 시 상호 방문은 물론 행정·문화·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 교환 등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철주 군수는 “성주군과의 자매결연이 무안군의 발전에 큰 힘과 도움이 되고, 친선교류 및 상호협력으로 상생발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서울 도봉구, 경기 군포시, 경남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DJ 고향 하의도에 한옥 숙박시설

‘인동초의 집’ 13일 개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의도에 관광객을 위한 한옥 숙박시설 ‘인동초의 집’이 오는 13일 문을 연다.

하의면 대리 ‘인동초의 집’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해안가에 위치한 전통한옥 2동 6실로 건립됐다. 각 객실은 전용면적 36㎡로 거실과 안방 등 2칸으로 구성돼 4인이 머무를 수 있다.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후광리와는 4km 가량 떨어져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전남도는 토지매입과 건축 사업비 10억원 등을 들여 지난해 10월 공사에 들어가 8개월 만에 완공했다.

전통 한옥형 구조에 주황색 기와, 원형기둥 등 세심한 설계로 생동감이 한옥 건물에 숨을 불어넣고 바라보는 듯한 형상이다.

우선 신안군이 관리인을 채용, 직영하며 운영이 안정화되면 마을기업 형태 등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061-240-8608.

모험 액션 애니메이션 목포시, 7억 들여 제작

목포시는 ‘해저도시의 모험’이란 주제로 해양과학 이해와 꿈을 키워주는 모험 액션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내년 말 선보일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제작에 들어간다.

이 애니메이션은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 자연사박물관 4D 영상관에서 상영한다. 목포 출구는 바다분수, 요트마리너시설, 목포해양축제 등에서도 상영된다.

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지자체 3D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3억 6000만원에 지방비를 보태 7억 2000만원을 들여 제작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북

귀리, 정음 대표작물로 키운다

**보리보다 2배 소득
연 300t 수확 22억 기대**

정음에서 귀리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해 10월 중순 파종한 귀리는 지난 겨울 긴 한파의 영향으로 수확량이 많았으나 귀리의 흡습이 알려지면서 인기는 상승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귀리는 단백질 및 지방의 일반적인 영양가치 이외에 우수한 식이섬유 및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음은 전국 최초로 식용귀리 재배지로 지난 2005년 시험재배를 시작으로 재배농가도 꾸준히 늘어 현재는 86농가가 320ha 규모를 경작하고 있다.

연간 수확량은 약 300t 정도다.

귀리는 40kg당 10만원 정도로, 보리에 비해 2배, 벼와 비교해도 1.2배의 생산소득이 높아 연간 22억원의 소득도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소득작목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정음지역 귀리재배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음귀리명품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총3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정음귀리명품화사업단 운영과 네트워크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 귀리가공처리시설 및 산업화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귀리를 정음시 대표작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군청 인사비리 사무관급 둘 구속

**전 부군수 자살 등 파장 갈수록 커져
일부선 “군수가 입장표명해야” 지적**

검찰의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 수사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결국 군수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안군청 인사비리 의혹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 5일 근무성적 평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신모(57)씨와 이모(58)씨는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순서가 뒤바뀐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13일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해 인사서류 등을 확보하고 2008년 당시 인사 담당공무원과 승진자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앞둔 2008년 당시 부군수를 지낸 박모(64)씨가 진안의 한 야산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두 달 이상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부안 군정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군민 박모(55)씨는 “이 정도까지 됐으면 군정의 최고책임자가 입장표명이나 해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v0681@

일부선 “군수가 입장표명해야” 지적

단신

정음, 전통 상업점포 8곳 지정 육성

50년 이상의 역사에 추억과 향수가 깃든 가계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상점도 육성된다.

정음시는 7일 지역의 전통과 장인 정신이 살아 있는 점포를 지역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8곳을 전통 상업점포로 지정해 인증서를 교부했다.

8곳의 점포는 정음민속대장간, 유행복복사, 영진모자점, 서울미상양산, 전승명가, 정주역자, 대성표구사, 대양습물집 등이다.

시는 이들 점포에 시설 개선 비용과 역사 등이 적힌 표지판을 지원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자원봉사센터-다문화센터 나눔협약

남원시자원봉사센터와 남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남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난 5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동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에 함께하기로 했다. 남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덕주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재능기부가 펼쳐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과제 부담 없이 여름방학 즐긴다

전북도교육청, 1인1과제만 선택

전북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과제 부담 없는 여름방학을 즐기게 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은 7일 “학생들에게는 1인당 자율적인 1과제만 선택하도록 하는 여름방학 학교관리 자료를 확정해 도내 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과제를 선정해 스스로 해결하면 된다.

학교에는 과제를 비교·평가하거나 경쟁을 유발하는 과제를 반드시 대신 자발적으로 과제를 발표·공유하게 했다.

아울러 수행평가와 연계하거나 선행학습을 위한 과제를 내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 특수교육 학생 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1인 1과제 정책을 시행해 학생 주도적 과제 수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승기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고창 예술 우수성 홍보 공연 지난 4일 고창군 고창농악보존회 및 국악예술단 고창 단원 50명이 수원시를 찾아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고창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연을 펼쳤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kwangju.co.kr

순창, 65세 노인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순창군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전북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이달 내로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영세한 노인인 대한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안 받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면제대상은 진료 당시 순창군에 주만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이며, 진료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 시설원예농가 5억원 지원

전주시는 고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사업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농가에 목재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및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을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지열냉난방 사업을 통해 시설원에 농가를 지원, 이들 농가들이 여름철에는 50%, 겨울철에는 70~80% 이상의 냉난방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파악하고 있다.

/군산=박승기기자 전북취재본부장